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k.net

주일오전설교

성도의 표

[살전 2:13]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한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役事)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인해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한 이유는 그들이 그가 전파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가 전한 진리 곧 오늘날 신앙성경에 기록된 복음과 그것에 근거한 생활 교훈과 천국 소망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였다. 그는 그들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받았으며, 그들이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며, 또 그것이 옳다고 증거한 것이다. ‘진실로 그러하다’는 말은 그가 전한 복음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들이 그것을 그렇게 받은 것이 옳았다는 뜻이다. 또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들 속에서 효력 있게 활동한다고 말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글자들이 아니고 살아서 활동하는 말씀이다.

[14절] [이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되었음이니 [이는]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받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속에 역사한 증거는 그들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것이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것이 그들의 영적 주소임을 말한다. 교회들은 또한 ‘하나님의 교회들’이다. 모든 참된 교회들은 하나님께 속하며 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교회들에게 최고의 권위, 최종적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곧 신구약 66권의 성경말씀이다.

[15-16절] 유대인은 주 예수와 [그들 자신의] [전통사

본]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의 죄악은 참으로 컸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사도 바울 일행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유대 땅에서 쫓아내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했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도 바울 일행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방인들 구원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항한 매우 큰 죄악이었다. 그들은 죄악을 항상 채우며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

[17-18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였고 그곳으로 가려고 한두 번 시도하기도 했다고 말한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제는 땅 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제이다. 그런데 사단은 바울 일행의 길을 막았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탄의 방해와 시험을 경험한다. 우리가 장차 사탄을 이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 때때로 우리의 삶과 봉사의 일들 속에 사탄의 방해와 시험을 허용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은 사탄의 방해와 시험을 염려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일에는 난관도 있지만, 우리가 진실히 충성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19-20절] [이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나?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니나 함이니라] [이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기 위한 이유는 그들이 바울에게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나타날 일을 말한다. 지금 교회들은 지상에서 여러 가지

싸움 속에 있고 불완전하지만,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복음의 결실들이 드러나고 주님의 평가와 보상이 있을 것이다. 그때 참된 성도들은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영광과 기쁨이 될 것이다. 물론, 실제로 순종함이 없는 이름만 가진 교인들, 참으로 회개치 않은 자들은 목사와 교회의 근심거리이며 수치이지만, 참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 비록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예수님을 믿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목사와 교회의 기쁨과 면류관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 그 말씀은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딤후 3:16). 특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주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갈 1:12).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신뢰하다가 범죄했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의 말을 듣다가 범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한 자는 구원과 영생을 얻지 못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받는 자마다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아는 것은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로 주신 책이며 우리가 매우 귀히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읽고 받아야 할 말씀이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은 참된 성도의 표가 된다. 실상, 이 말씀은 오늘날도 살아 있는 말씀이다.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시(夢事)를 얻은 선지자는 몽시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나?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나?”고 하였고(렘 23:28-29), 히브리서 4:12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하면서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케 하심을 입은 모든 자기운데 기쁨이 있게 하시리라”고 말했다(행 20:32).

둘째로, 참된 교회는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은 유대인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받았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믿는 자들을 쫓아내었고 또 이방인들에게 전도하

는 것도 금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는 일이며 자기들의 죄를 항상 채우는 일이며 하나님의 진노가 미침내 그들에게 임하였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도 그들의 나라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였다. 우리나라 교회들도 일제시대와 공산치하에서 고난을 당했었다. 그러나 우리는 경건과 도덕성을 지키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된다. 그것이 성도의 참된 표이다.

셋째로, 참된 성도는 전도자들의 소망이며 기쁨이며 자랑과 영광이다. 사도 바울과 그 동료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생활 교훈과 모든 진리들을 전했다. 사탄의 방해가 없지 않았지만, 사도들은 때때로 그들을 방문하여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 격려하였다. 그들은 전도의 결실이었고 교훈과 양육의 대상이었다.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여 좋은 성도, 좋은 제자가 되는 것은 전도자들의 큰 기쁨이었다. 특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곧 하나님의 심판과 보상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와 목회와 교회 봉사의 선한 일들에 힘쓴 자들에게 좋은 상을 주실 것이 확실하다. 성도들이 그 증거가 될 것이다.

주일오후설교 | 바벨론의 멸망과 그 이유

[계 18:1-8]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귀신들)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취하였으며)(전통사본)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부유하였음이라) 하더라.

주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배교한 교회는 앞장에서 말한 큰 음녀이며 13장에 예언된 두 짐승 중 두 번째 짐승과 동일하다고 본다. 그것은 17:5에는 큰 바벨론으로 표현되었다. 그 배교한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확실하게 멸망할 것이다. 그 멸망의 이유는 그 교회가 각종 더럽고 가증한 영들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집합소, 즉 모든 형식적 교회들과 종교들을 통합할 것이기 때문이며, 또 땅의 왕들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했기 때문이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부유하였기 때문이다. ‘음행’이란 영적인, 육적인 뜻을 다 가진다고 본다. 그 교회는 거짓된 사상들과 이념들과 종교들로 만국을 미혹시킬 것이다. 즉 그 배교한 교회는 신학적 포용주의와 종교적 다원주의 입장을 취할 것이다. 또 그 교회는 거룩과 의

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을 인도하기는커녕 음란을 조장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사치’라는 원어도 ‘사치’라는 뜻과 함께 ‘음탕함’이라는 뜻도 있다.

[4-8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는]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기억하신]이래.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 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배교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그 배교의 죄와 그 영적인, 육적인 음행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에서 분리되어 나와야 한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그 배교한 교회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그 배교한 교회와 정신적으로 분리할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적으로도 분리해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것이다.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는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게 그 행위대로 갑절이나 갚으실 것이다. 그는 그 교회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며 사치한 만큼 그에게 고난과 애통으로 갚으시며 그 교회가 자신을 여황으로 높이고 지만한 만큼 하루 동안에 사망과 애통과 흉년의 재앙들을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불로 그를 사르실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바벨론의 정체를 알아야 한다. 2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귀신들]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기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배교한 교회는 모든 형식적 교회들, 이단 종파들, 심지어 이방 종교들을 통합할 것이다. 그것은 오늘날의 특징인 포용주의와 다원주의의 교회이다. 또 7절 하반절,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 배교한 교회는 교만과 음란과 사치와 쾌락의 교회일 것이다.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 로마 천주교회에서 상당히 나타났다. 그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이방종교들의 풍습들을 받아들여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리아 숭배이다. 또 그 교회는 많은 성도

들을 고문하고 학살하였고 교황청은 오랫동안 매우 음탕했다. 또 오늘날 개신교회들도 매우 부패하고 해이해졌다. 많은 교회들이 이단적 자유주의 신학을 수용하고 있고 대교단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는 세계교회협의회(WCC)는 심지어 이방 종교들을 포용하려 하고 있다. 또 오늘날 다수의 교회들은 낙태와 동성애를 용납하고 심지어 동성애 목사들이 있고 동성애 결혼식을 주례하고 있다. 이것은 본문에 예언된 바로 이 바벨론, 바로 그 음녀 교회의 모습이다.

둘째로, 바벨론, 즉 배교한 교회는 멸망할 것이다.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6절,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다.

셋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서 나와야 한다.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우리는 배교한 교회 안에 있지 말고 나와 바른 교회에 속해야 하고 바른 교회를 세워야 하고 고난과 핍박과 순교를 각오해야 한다. 디도서 3:10,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요한이서 10-11,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수요일 설교 |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

[사 1:1] 유다 왕 웃시아와 요담과 아has와 히스기아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異像)이라.

이사야는 주전 740년부터 680년 사이에 남쪽 유다 나라에서 사역한 선지자이었다.

[2-3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배반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됨을 지적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하셨고 양육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효막심한 자식같이, 배은망덕한 사람같이 하나님을 거역했고

배반하였다. ‘거역하다’는 원어는 ‘배반하다’는 뜻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수없이 많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면 하나님께 순종했을 것이다. 그들은 짐승보다 못한 자들이었다. 소와 나귀도 그 정도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것들은 그 주인을 알아보고 순종하였을 것이다. 죄인들이 다 그러하다.

[4-5절] 슬프다, 범죄한(죄악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악을 행하는) 자들의 종재(재, 자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경멸하며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더욱 패역(거역)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죄악된 나라이며 허물진 백성이며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이었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었다. 그들은 매를 맞으면서도 더욱 거역하였다. ‘패역하다’는 원어는 ‘거역하다’는 뜻이다.

[5-9절] . . .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어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오이밭)의 상적막(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고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징벌을 증거한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치료와 회복의 처방을 주지 않으셨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징벌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도 있었다. 이사야는 딸 시온이 포도원의 망대와 같이, 오이밭의 원두막과 같이, 에워싸인 성읍과 같이 겨우 남았다고 표현하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조금 남겨 두지 않으셨더라면 그들이 소돔 성과 같고 고모라 성과 같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긍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금 남겨 두셨다. 이사야서에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아 있는 자’ 등의 말이 14번 나온다. 이것은 죄로 멸망케 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구원을 암시하며 그 멸망케 된 인류 중 일부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선택을 암시한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고 체험했

음에도 불구하고 불효막심하고 배은망덕한 자식같이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짐승들보다 못한 자들이 되었다. 이성 없는 짐승들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주인을 거역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주인의 말을 듣고 그를 기쁘게 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보배이신 하나님을 버렸고 매를 맞으면서도 더욱 거역하며 변질하였다. 그것은 인간 본성 속에 있는 치료 불가능한 죄성을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심령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알고 그를 배반치 말아야 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해 엄하게 징벌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전염병으로 치셔서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빼앗으셨고 또 그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처방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는 또 그들에게서 사회적 평안과 경제적 안정도 빼앗으셨다. 그들에게는 전쟁과 혼란이 있었고 기근과 궁핍이 있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악에 대해 내리시는 엄하신 징벌을 두려워해야 한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징벌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조금 남겨두셨다. 남은 그들은 포도원의 망대 같고 오이밭의 원두막 같았다.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그들은 옛날 소돔과 고모라 성같이 완전히 멸망했을 것이다. 우리의 구원도 그러하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 중 얼마를 남겨두셨다. 구원의 본질은 의(義)의 회복이다. 우리에게 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 바울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救贖)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말했다(롬 3:21-24).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과 그의(義)만 믿고 의지해야 하며, 이제는 죄와 결별한 삶을 살아야 한다.

책안내 전화: 02-334-8291 oldfaith@hjdk.net

- 소선지서 강해. 2판. 318쪽.
- 발림보서 골로새서 강해. 2판. 143쪽.
- 신약성경 전통본문 옹호. 166쪽.
- 공산주의 비평. 4판. 44쪽.
- 요한 1,2,3서 유다서 강해. 2판. 104쪽.
-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강해. 2판. 169쪽.
- 천주교회 비평. 2판. 97쪽.